

# 東大 안팎서 반발여론 '시끌'

## 학과 통폐합 학내반발 심화·경주선 의과대 이전 비판여론

동국대(총장 오영교)가 내외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5월 2일 효율적 학교운영을 하겠다며 비인기학과 통폐합 조치(상시입학정원관리시스템)를 발표한 후 동국대교수회(회장 정재형), 공과대·문과대·이과대 교수 및 학생, 동문 등이 20여개의 반대 성명서를 쏟아내는 등 학내 반발이 뜨겁다.

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은 동국대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제도로 오영교 총장 개인 인기로 영합한 반불교적 행위"라며 비판했다. 공과대 교수들은 "의견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

개돼 재학생·동문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학교에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입학성적(15%), 경쟁률(5%), 재학률(40%), 강의평가(10%), 취업 및 진학률(20%), 교수 1인당 대학원 학생 수(10%)의 학교의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불만이 쏟아졌다.

의명을 요구한 동국대 교수는 "학교에서 미리 평가기준 조정이 있었다"고 밝혀 통폐합 대상학과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교내 20여개 단체의 성명서들은 한 목소리로 '상시입학정원관리

시스템'의 철회를 요구하며 오영교 총장의 독단을 성토했다. 성명서 발표 단체의 근본적인 요구사항은 학내 구성원의 존중과 소통을 통한 정책 수립이었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있는 경주지역 민심도 흥분하다. 4월 28일 동국대 포항병원 폐쇄 결정에 이어, 5월 15일 의과·생명과학대를 이전해 일산에 미래지향적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 때문. 5월 21일 경주시가 손동진 총장(동국대 경주캠퍼스)을 항의방문한 것을 비롯, 경주시개발자문위원회 등 경주 지역시민단체들은 동국대 의과대

이전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동국대 의과대가 1986년 경북지역 의료인력 배출 등을 명분으로 설립했지만 이제와서 수도권규제 완화 분위기에 편승해 일산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배은망덕'하다는 것이 경주의 민심이다.

로스쿨 탈락에 이어 상시입학정원관리시스템에 관한 교내 반발이나, 동국대 의과대 이전과 관련한 경주지역 반발 등 잇단 비판 여론에 동국대는 '산 넘어 산', 진퇴양난의 형국에 처하게 됐다.

조동섭 기자



5월 21일 태고종 중앙금강계단 수계식에서 연비하는 해법 전법사와 해안·해도·요성 스님(왼쪽부터) 등 수계 제자들.

## 태고종 외국인 승려 득도 수계법회

### 목사출신 등 3명...미국·유럽 등 해외포교 활동 담당

장로교 목사 출신을 포함한 3명의 외국인 이 태고종 사미(니)계를 받았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5월 21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법보전에서 중앙금강계단을 설치하고 아메리카와 유럽지역의 해외포교에서 수행과 포교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해안

(Lance), 해도(Gary), 요성(Keren) 등 3명의 미국인이 사미(니)계를 수계했고 영국인 로버트(해법)씨가 전법사계를, 카멜라(Camella), 티모시(Timothy), 박영(Young Park) 등이 보살계를 수지하여 총 7명의 외국인 태고종도가 탄생했다.

이날 수계자들은 모두 해외포교종무원장 종매 스님의 지도 및 안내로 수계법회에 동참했다. 특히 이번

년간 장로교 목회자로서 활동해 왔으나 불교로 개종한 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머디워터선원(Muddy Water Zen Center)을 열고 많은 외국인 수행자와 신자들과 함께 수행하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계자들은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 태고종도로서의 활약을 하게 되며 태고종의 해외포교에도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

김성우 기자

## “초심호계위부터 종법 준수를”

### 교단자정센터 성명서 발표...초심위 잇단 심리연기에 '일침'

조계종 호계원이 징계에 회부된 전·현직 본사주지들에 대한 심판·심리 연기결정을 잇달아 내린데 대해 재가단체의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옥)는 5월 19일 발표한 '초심호계위부터 종법을 준수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호계원법 제

23조에는 '초심호계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최종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호계원의 엄정한 종법 준수를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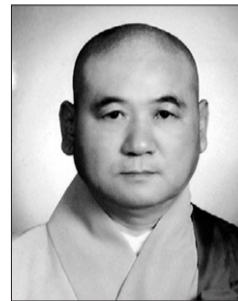
교단자정센터는 "대검찰청이 지난 3월말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범죄를 중점적결대상 범죄로 규정해 특별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각 지검에 지침을 시달렸다"며 "초심호계원이 계속 심판·심리를 연기해 종법을 어기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면, 자정의 죽비가 초심호

계원으로 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재심호계원은 5월 21일 제43차 심판부를 열고 안산 대부도 등지정소년의 집과 관련한 직무비위 등으로 징계회부된 지공 스님에게 초심 심판대로 종단에서 퇴출되는 '제적' 심판을 결정했다. 또한 심판부는 미등록 사설사암과 승품실추로 회부된 도일 스님은 미등록 사설사암의 종단등록을 전제로 초심판결인 제적을 낮춰 공판정지 10년을 판결했다.

김성우 기자

### 하동 쌍계사 주지후보 상훈 스님 무투표 당선



조계종 제13 교구본사 하동 쌍계사 주지 후보에 상훈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쌍계사는 5월 17일 총 80명의 선거인단 중 46명이 참석한 산중총회에서 단독 출마한 상훈 스님을 무투표 당선시켰다.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은 은사로 출가한 상훈 스님은 해인승가대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을 졸업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쌍계사 총무, 국사암 감원을 역임하고 현재 구례 불락사 회주를 맡고 있다.

주지 진산식은 6월 5일 쌍계사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구독신청·기사제보  
02-2004-8200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구 안국동 175-6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턴비 실사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예시이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간과 장소를 동시에 지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 지향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 사찰총회,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생활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장순례, 기업동영상총회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중단협 中 지진피해 성금 1억원 모금**      **대중결계 신고 10일 연장**

**조계·천태종 등 미얀마 사이클론 구호성금 전달도**

불교 종단들이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에 이어 중국 지진피해 구호성금 모금에 나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5월 22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중국 지진 피해 구호 성금 1억 여원을 모아 중국불교협회에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회원종단별로는 조계종 5000만원, 태고·천태·진각종 각 1000만원, 관음·보문종 각 500만원, 총화종 300만원, 일명선교종 200만원

등의 성금이 모아질 예정이다. 이미 중국불교협회에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한 천태종은 이번엔 추가 성금을 전달하게 된다.

한편 미얀마 사이클론 구호성금과 관련 해서는 조계종이 3000만원, 천태종과 진각종이 각 1000만원을 주한 미얀마대사 등을 통해 전달했으며, 태고종은 5월 23일 통영에서 열린 '임란 전법 호국영령 위령제'에서 성금모금 캠페인을 펼쳤다.

김성우 기자

조계종이 올해 처음 시행한 '대중결계' 신고기간을 당초 5월 19일에서 29일로 연장했다.

조계종은 수행종중 진작을 목적으로 제정한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5월 10-19일 대중결계 신고를 접수했지만, 많은 스님들이 결계신고 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29일까지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총무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중스님들의 의견 또한 지속적으로 수렴해 승중진작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세계불교 법왕청      **일붕 서경보 존자 원적 12주기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평화 통일 성취를 기원하시고 온 중생을 제도하신 일붕존자

귀의 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존하의 법체청안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저희들의 대스승이시며 세계불교법왕청 설립 초대법왕을 역임하시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을 창종하신 일붕 서경보존자님의 열반 12주기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무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붕 존자 열반 12주기 추모대제 봉행위원회 ◁**

**다 음**

○ 일 시 : 불기 2552(2008)년 6월 12일(음 5. 9) 목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의령 봉황산 일봉사(一鵬寺)

○ 연락 및 문의처

1)서울총무원 : 전화 02)998-8161, 2 전송 02)998-8384

2)의령 일봉사 : 전화 055)572-7777

3)문도회 : 전화 054)633-1138

4)각교구총무원 및 일붕관계단체

○ 홈페이지 : http://ilbung.org

○ 중 명 : 봉해 대종사, 무찰대종사, 해룡대종사

○ 고 문 : 각종단 종정, 대덕 큰스님, 금봉(장로원장) 도기(문도회장), 명종(장로부회장), 청송, 원각, 원경, 송은, 수암등 원로위원, 해천, 무공, 법운, 원광, 한화란(금강선원총재), 찰스메시시에카(미국AEUP총재), 원의범(일붕삼장대학원장),

○ 지도위원장 : 해운(일봉사 주지)

○ 지도위원 : 이무성, 김진철, 송월성, 박해강, 장삼준, 최성기, 김창락, 남강수

○ 봉행위원장 : 지공(총무원장)

○ 봉행부위원장 : 법선(총무원부위원장), 서병렬(문도회사무총장), 김인덕(법사단부이사장)

○ 추진위원장 : 화엄(중앙총회회장), 경원(재단이사장)

○ 추진부위원장 : 도인(총회사무처장), 법광(전국비구니회 회장) 최해숙(수도사회장), 권기태(일봉사 반야회장), 정금조(일봉사 지장회장) 배맹자(일봉사 약사회장),

○ 기획위원장 : 응암(호계원장)      ○ 집행위원장 : 원각(교육원장)      ○ 동원위원장 : 법운(포교원장)

○ 진행위원장 : 법성(감사원장)      ○ 경호위원장 : 정철(이사장)

○ 각교구동원위원장 : 삼주(부산교구), 석담(대구교구), 용운(인천교구), 응주(대전교구), 도현(울산교구), 광운(경기남부), 도해(경기북부), 보해(강원동부), 동청(강원서부), 보광(경남교구), 해동(경북교구), 해성(전남교구), 석성(전북교구), 청표(충남교구), 경운(제주교구)

○ 분 과 위 원 장 : 총무분과 - 용운(총무부장), 의전분과 - 보월(사회부장) 재무분과 - 해관(재무부장), 사무분과 - 지언(교무부장) 경호분과 - 지우(규정부장), 봉사분과 - 해성(포교부장) 홍보분과 - 진명(사회부장), 섭외분과 - 법해(교육부장)

○ 분과부위원장 : 총무분과 - 영담(총무국장), 의전분과 - 영우(사회국장), 홍보분과 - 자해(홍보국장)

■ 주최 :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붕존자 추모대제 봉행위원회      ■ 주관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일봉사      ■ 후원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이사회, 대한불교 일붕문도회, 세계인류평화불교연맹, 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